

북스

Books

가우디가 피카소를 만나면?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2

임석재 지음



한국의 기와집 처마 끝은 하늘로 날아갈 듯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열은 먹을 풀어놓은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아름다움을 준다.

멀리서 두고 바라보면 한층 정이 가는 것이 한국 건축물이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산 조상의 은은한 멋과 예술적 미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축 분야 최고 글쟁이인 임석재(46) 이화여대 교수는 신간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1·2)를 통해 집과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이들은 먼저 미술관을 찾아 보라고 조언한다.

책은 건축과 미술을 시각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두 장르 사이의 연관성과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건축과 미술은 다르면서도 같다"고 주장한다.

건축의 기능주의나 합리주의를 알면 몬드리안의 추상회화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미술 사조 중 입체파를 알면 르 코르뷔지에 등 건축가가 추구했던 상대적인 공간의 문명사적 의미를 알 수 있다. 건축과 미술의 유사성 때문에 서로의 장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화가 크노프의 작품과, 동시대를 살았던 건축가 오르타가 설계한 빌라의 반 에트베데 하우스가 비슷한 상징주의 범주에 속한다. 크노프는 심리적인 도피처를 동몽한 환상세계로 보여줬고, 오르타는 주택의 내부에 심리적 도피처인 뜰(중정·中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프 몬드리안의 빨강, 노랑, 파랑에 의한 구성은 건축가 드스뷔르흐가 설계한 암스테르담 대학교 홀의 천장과 벽 등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현대추상예술과 건축이 만난 것이다.

반면 기능주의, 합리주의, 유기건축 등은 건축에만 있고, 입체파는 미술에만 있는 예술사조이다.

건축과 미술이 서로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연구한다면 건축과 미술을 단독으로만 접근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건축과 미술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이유로

- 건축을 알고 나면 미술이 다시 보이고
- 미술을 알고 나면 건축이 새롭게 보인다

▲건축을 알면 미술이, 미술을 알면 건축이 보이고 ▲20세기 예술 흐름의 전반을 알 수 있으며 ▲철학, 사회학, 인문사상 등의 흐름도 엿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미래주의, 입체파, 순수주의, 기능주의 등 각 예술 사조별로 묶어 설명하고 있으며 다양한 미술작품과 건축물의 모습을 사진으로 곁들였다. 또 화가와 건축가에 대한 설명을 따로 뽑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임 교수는 지난 1995년 첫 책 '추상과 감흥'(문예마당)을 낸 뒤 12년 동안 30여 권의 건축 관련 책을 썼고, 서양건축사 통사를 집필하고 있는 등 건축사 전문가이다.

〈휴머니스트·각 1만9천원〉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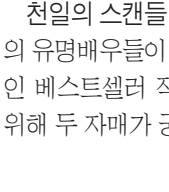


건축가 레이몬드 후드가 설계한 록펠러 센터.

새책



선부론=능력있는 자, 먼저 부자가 되라=언론사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저자 던컨 휴잇은 중국의 복지, 교육, 문화, 신구세대의 갈등, 공산당과 종교문제, 성혁명, 이농현상 등 다양한 사회현상을 이야기하며 중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랜덤하우스·1만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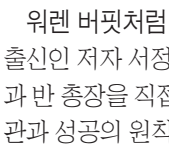
천일의 스캔들 1,2권=나탈리 포트만, 스칼렛 요한슨 등 할리우드의 유명배우들이 호흡을 맞춰 화제가 됐던 영화의 원작 소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리프 그레고리가 사랑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두 자매가 궁중에서 벌이는 경쟁과 암투를 생생하게 그렸다. 〈현대문화·각 권 1만5천원〉



제너시스-생명의 기원을 찾아서=지구과학 박사인 로버트M. 헤이슨이 원시 지구의 대기, 해양, 해저, 지하에서 분자들이 등장하는 과정, 자기복제를 할 수 있는 분자 집단의 출현 과정 등을 통해 원시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지를 흥미롭게 설명했다. 〈헌송·2만5천원〉



선사-개달음을 읽는다=이은윤 금강불교신문 사장이 선승과 거사(居士), 문인들이 남긴 선사 가운데 수작 13편을 해설했다. 뱃사공으로 살았던 당나라 화정선사를 비롯해 '시불(詩佛)'로 불렸던 왕유, 당송 8대가 유종원 등의 선시를 문학·적·종교적으로 살폈다. 〈동아시아·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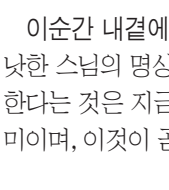
워렌 버핏처럼 부자되고 반기문처럼 성공하라=경제전문지 기자 출신인 저자 서정명이 3년간 뉴욕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버핏 회장 과 반 총장을 직접 만나 밀착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자가 되는 습관과 성공의 원칙을 자세하게 전한다. 〈우한·1만2천원〉



메르헨, 자아를 찾아가는 빛=신화학 미야타 미쓰오가 그림형제와 안데르센의 동화, 미하엘 엔데의 '모모'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동화 속에 담긴 기독교 사상을 분석했다. 저자는 '은총'이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부각시켜 기독교 사상을 전파했다고 말한다. 〈세계적·1만4천800원〉



변산공동체학교-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1996년 농사꾼이 되고 싶어 충북대 철학과 교수직을 버리고 변산에서 공동체를 꾸린 유구병씨가 대안학교 '변산공동체학교'의 풍경을 생생하게 담았다. '해 대안학교교인' 등 교육 이야기와 김미선씨가 취재한 학생·학부모·선생님들의 이야기가 함께 묶였다. 〈보리·1만1천원〉



이순간 내결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세계 불교의 주인공 티 닷한 스님의 명상 예언, 스님은 이 순간 내 결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며, 이것이 곧 진정한 보살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마음의 숲·9천800원〉



한국사(전)=KBS '한국사' 제작진이 왕조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이야기를 담았다.임진왜란 승은 주역 홍순연, 대한민국 1세대 근대여성 리진, 조선의 여성 CEO 김만덕 등 지금껏 우리 역사가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살폈다. 〈한겨레출판·1만2천원〉

성공 습관의 비결

자신감에 달려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절대 빠지지 않는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자신감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를 지낸 로저베스 모스 센터가 성공하고 싶은 개인과 조직이 꼭 가져야 할 힘으로 자신감을 꼽았다.

저자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2천754명의 답변과 세계 각국의 리더와 조직을 상대로 조사한 사례 300여건을 분석했다. 그리고 높은 성과를 내는 시스템과 조직을 수년 동안 연구한 결과 지속적인 승리의 정통은 '자신감(confidence)'에서 비롯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저자는 팀의 리더가 팀원들에 대해 믿음을 가질 때 그림은 최대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황금기·1만6천원〉 /이은미기자 emlee@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까지

김병모 지음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은 '국대 결혼'을 했다. 먼 이국 땅 아우타국의 공주 허황옥은 서기 48년 배를 타고 가락국에 도착했고 수로왕과 연을 맺었다. 그녀는 어떤 경로로 가락국까지 오게 됐을까.

고고학자 김병모가 펴낸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까지'는 수로왕비 허황옥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엮은 책이다.

책은 '자전적 소설' 형식을 띠고 있다. 이야기는 저자가 1961년 자신의 시조인 김해 수로왕릉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왕릉 대문에서 인도식 탐과

김수로왕비가 된 아우타국 허황옥 혼인길

비슷한 물체를 마주 보고 있는 쌍어(雙魚)를 발견하고 호기심을 느낀 '나'는 인도에서 시집 왔다고 알려진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후 허씨릉'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허황옥'의 자취를 추적하게 된다.

저자는 4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 세계 각국을 직접 발로 훑으며 조사한 결과 아우타국이 기원전 7세기에 아리아족이 세운 인도 코살국의 중심지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밝혀낸다.

그럼 허황옥은 그 먼 아리아족에서 가락국까지 온 것일까. 저자에 따르면 아리아족의 지배 계급과 지식인들은 중국 사천성 보주로 이주해 왔고, 그곳에서 태어난 허황옥은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 가락국

으로 왔다. 저자는 사천성의 보주 허씨 집성촌 등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허황옥'의 이름을 발견한다.

지난해, 1994년 출간된 '김수로왕과 허황옥' 개정·증보판을 내자는 제안을 받은 저자는 아리아족을 떠난 인도인들이 어떤 경로로 보주 땅에 도착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직접 답사에 나섰다. 그 결과물을 이번 책에 실었다.

쉬운 글쓰기와 함께 한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되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특히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 등 '허황옥'의 후손들에게는 '조상'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 훨씬 더 재미있게 읽힐 듯하다.

〈역사의 아침·1만3천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TEL)223-1140, 5210 TEL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빌딩,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들것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TEL)234-8216 TEL 011-609-0896
(광주주재국부근)

상가건물 매도
금남로 대로상대지 231㎡(70평) 5층 20억
충장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충장로 대지 208(63평) 4층 23억
충장로 대지 165(50평) 4층 23억
황금동 대지 132(40평) 3층 10억
광산동 구사천 대지 537(163평) 4층 15억
불동동 한양대교변 코-1 대지 294(89평) 4억
동봉지구 3면도로 단층대지 1,190(360) 8억
원산동 대원 대지 390(118평) 6층 6억5천만

토지매매
운림동 4차선지 2,627㎡(804평) 당 160만
운림동 녹지 3,966(1,207평) 294천만
월산동 대원동 주지 1,090(330평) 4억5천만
불동동 25만집 2,316(700평) 3.3㎡당 250만
도현동 자연지 16,530(50평) 3.3㎡당 75만
도산동 전철역주지 6,611(2천평) 20억
인행동 주지 11,900(3,600평) 3.3㎡당 80만

전원주택
황동동 주지 760㎡(230평) 당 70만
금곡동 주지 1,490(450평) 1억4천만
운림동 대지 463(140평) 한옥 1억1천만
자신동 주지 3,640(1,100평) 3억5천만
달인항 송파대지 대지 2,300(700평) 2억
화순 남면 대지 660(200평) 한옥 4천만

임야
화순 도곡 관리지 52,900㎡(1만6천평) 당 8만
화순 도곡 아산 105,700(3만2천평) 3.3㎡당 6만
화순 도곡 3,200(970평) 3.3㎡당 6만
화순 남면 관리지 165,000(5만평) 5억
화순 한천 218,000(6만2천평) 3.3㎡당 6천
화순 이랑 53,000(1만 6천평) 9천만

기타부동산
조대 대로변점 대지 760㎡(230평) 8억
금호동 관동 대지 330(100평) 3.3㎡당 400만
화순 개곡점 6,600(2천평) 8천만
화순동 자연지 30,000(9천평) 1억3천만

상무랜드공인중개사
☎(TEL)383-5221 TEL 011-609-5221
(구삼루대 정문)

빌딩
대지 600 건물 1,352 보36억/월세 3,100만원(지역최고상권)용지 12억대 719억(대우교차로가)는
대지 260/건 2,000, 보 20억/월 4,000만원 용지 8억 매가 165억
대 200/건 725, 보 8억8천 원 1,700만원(신축) 용지 8억 매가 134억
대 200/건 900, 보 8억3천 원 월세 1,100만원 매가 165억
대 300/건 1,200 보 1억/월 800만원 매가 115억 5천
대 125/건 175, 보 1억/월 800만원 매가 15억 5천

땅
(상부지)
2,800㎡(850평) 3.3㎡당 1,200만원
727㎡(220평) 3.3㎡당 1,200만원 (유류지)
450㎡(136평) 3.3㎡당 850만원(유류지)
33㎡당 800만원(사향역주지)
(기타지)
사천동 대지 3,000㎡(900평) (예산지, 학원지) 평당 180만원
주지 2,900㎡(870평) 3.3㎡당 1,200만원 (266평) 3.3㎡ 당 8360만원(유류지)
(동진) 광산동 73,000㎡ (2만2천평) 농지 3.3㎡당 111만원(동진동)
(중동) 3,760㎡(1,140평) 평당 40만원

병원·화원·수파·식당 기타
(하남)상신동 1,200㎡(360평) 3.3㎡당 350만원 (병원 학원 식당지)
(수원)주지 7,000㎡(2100평) 3.3㎡당 700만원
대지 5,280㎡(160평) 3.3㎡당 470만원

모텔·호텔매매·시우나
24실 44개 용지 16억 매가 127억
24실 70개 매가 188억
매가 500/간별 1,900 시우나
매가 59억

★24시간 전화 문의 접수합니다★

대지공인중개사
(공정 책임중개)
☎ 010-8572-8985

구합니다.
시내주유소구함
공시지가 이하토지 구함(금액무관)
임대특이 땅은 상가건물구함.
관리지역의 임야 구함.

매각중개대상물
『도현동 자연지』
2200㎡ 대 7억9천 원 공업사, 고물상, 공장, 공장 창고 지점
『도현동 생산지』
3000㎡ 대 7억7천 원 공업사, 고물상, 공장, 공장 창고 지점
『신안동 상업지』
대지 139㎡ 조립식 건물있음 대 2억2천 원

『투자하기 있는 토지』
광산구 우산동 당 1883㎡ 대 2억7천 원

『담양군 대덕면 임야』
18032㎡ 대 3.3㎡당 4만2천 원 관 리지역 2차선도로 150m 전(공장, 물류창고, 사회복지시설적합)

『담양군 창평면 임야』
36023㎡ 대 3.3㎡당 2억2천 원 2차선도로 85m 전

『홍성동 자연지 잡종지』
9300㎡ 대 3.3㎡당 180만원 농지 전용 비농지(유류지) (물류창고적합)

『양동 주가지역 8차선도로변 주공단지 정문근거리』
대지 800㎡ 대 7억5천 원 (전사판 매장, 물류창고, 시육지점)

『홍성동 35㎡ 대로변』
대지 820㎡ 한정식사 2층 건물있음 대 8억 5천 원 (교육시설, 시육, 물류 창고, 전사판매장, 컨테이너지점)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신설명령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합	수원지구	건축상담
청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월당 470만) 200평 22억(월당 1100만)	주요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억
수원택지개발지구 이주지역지 협의안도민택지 생물대택지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단부지 2900 2600 4900평 수원동 4차선지 1200평 1800평 북구본동 850평	전용가능한급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 6차선지 생산녹지 : 2800평-평등공인안건 특가상당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세 122평 80평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축사 등)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1만평 보성 58만평 함평50만평 부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가 17억 5천만원	상중동 260평 2중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을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 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 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청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한일지도판매(주)
☎(TEL)529-1409 상담 010-2466-1409 (전화)527-6310, 011-9433-6310
(광주시 동구 자신동 373-8 법원정문앞)

2008 최신 합본(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합본책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합본책은?

- 광주** 광역시 전지역 재개발·도시 계획·용도지역·하남부공단 경제수목 최신 지적, 신규APT 수목
- 나주** 나주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2차 해제수목, 나주송월동 스포츠대기 수목, 송월택지개발 지구 7기반수목
- 화순** 나주 송곡리 남양유업수목, 함평(매곡·북동면) 50만원 합본도시 최정준 수목, 화순도시로 연결된 도시계획 수목
- 장성** 화순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수목 최신지적 수목
- 담양** 장성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개발예정인 장성 남면도 그린벨트 1차, 2차 해제수목
- 함평** 나노지 지적, 배지도 수목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성·담양·화순·나주쪽은 그린벨트 해제된 책이 없습니다. 이외 더 많은 부분이 있으나 사연으로는 다 입말수가 없어 공급하신 부분이 더 많은 것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시 한일합본 전책 약 1000권이 넘는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세금을 단행하였으니 높은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영업사원 0명 모집】